

陸隴其 학설의 유입과 조선 학계의 반응

申在湜*

I. 머리말	III. 陸隴其 학설에 대한 조선 학계의 반응
II. 조선 후기 陸隴其 학설의 유입	IV. 맺음말

• 국문초록

明末清初 朱子學者 陸隴其(1630~1692)는 주자학적 가치관 회복을 민생과 사회 안정책으로 삼고, 경전에 대한 엄밀한 연구를 통해 주자학의 진리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이유로 육룡기 학설은 조선 학계의 주목을 받고 수용된 바 있다. 따라서 육룡기 학설에 대한 조선 학계의 인식은 명말청초 주자학설이 조선 후기 학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조선 지식인은 청나라 조정의 주자학 진흥책과 관련하여 주자학자 육룡기의 문묘 배향과 그 실증적 연구 성과에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육룡기가 추구한 연구 목적, 즉 주자학의 정통성 확립과 이단 배척은 주자학 연구가 심화되어 가던 조선 학계의 호감을 살만한 것이었다. 이는 양명학을 위시한 이설을 반박하고 주자설을 변호하는 육룡기 학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사례, 특히 육룡기의 주자의 『大學章句』 변호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호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선 지식인은 주자의 『四書集註』의 대의에 반하는 육룡기 학설을 비판하였다. 즉 학설에 대한 선별이 정밀하지 못하고 자구에 대한 분석이 번잡한 나머지 도리어 주자 학설의 대의를 놓쳐서 학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양명학파에게 주자학 비판의 구실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조선 학계의 중국 학설 수용의 한 특징으로, 조선에서 중국 학설을 수용할 경우 일정한 관점 내지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대목이라 하겠다.

주제어 : 陸隴其, 明末淸初, 朝鮮後期, 朱子學 변호, 陽明學 비판, 大學章句, 四書
集註

I. 머리말

본고는 明末清初 朱子學者 陸隴其(1630~1692) 학설에 대한 조선 학계의 인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육룡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살았던 명말청초 뿐 아니라 그 학설을 수용한 조선 후기 학계의 동향 역시 살필 수 있는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육룡기는 명말청초를 대표하는 주자학자이다. 그는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 양명학의 성행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자학적 가치관 회복을 민생과 사회 안정책으로 삼고, 경전에 대한 엄밀한 연구를 통해 주자학의 진리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이유로 육룡기 학설은 조선 학계의 주목을 받고 수용된 바 있다. 따라서 육룡기 학설에 대한 조선 학계의 인식은 명말청초 주자학설이 조선 후기 학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지금 중국 학계에서는 육룡기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四書學·周易學 등의 經學, 朱子學, 理氣心性論, 尊朱辟王論, 工夫論 등이 그것이다.¹⁾ 한편 조선의 육룡기 수용에 대한 연구는 조선 『大學』 연구의 맥락에서 소개되었다.²⁾ 이러한 연구는 육룡기 경학 연구의 일부 성과가 조선의 학술에 미친 영향을 소개한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조선 학계의 육룡기 학설 수용과 비판의 전반적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조선에 미친 육룡기의 영향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조선 학계의 전반적 반응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 육룡기에 대한 조선 학계의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조선 학계에 육룡기 학설이 유입된 경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선 학계의 반응을 수용과 비판으

1) 杜凱, 「陸隴其理學思想研究」, 淮北師範大學 碩士學位, 2017; 翟盼盼, 「陸隴其箋注周易傳義整理與研究」, 西南科技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孫經超, 「陸隴其理學思想研究」, 『報刊蒼萃』, 2017; 林國標, 「陸隴其理學思想評議」, 『孔子研究』, 2004; 晉聖斌, 「陸隴其理學思想述評」, 『中州學刊』, 1994; 秦躍宇, 「陸隴其理氣心性觀研究—以『問學錄』和『三魚堂剩言』爲中心」,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6; 張天傑, 「陸隴其的『四書』學與清初的『由王返朱』思潮」, 『浙江社會科學』, 2016; 唐明貴, 「從『松陽講義』看陸隴其的『論語』學特點」, 『社會科學戰線』, 2008; 耿芳朝, 「陸隴其理學『尊朱辟王』的努力與開新」, 『鄂州大學學報』, 2014; 張天傑, 「從張履祥·呂留良到陸隴其—清初『尊朱辟王』思潮中一條主線」, 『中國哲學史』, 2010; 秦躍宇, 「陸隴其『工夫論』思想研究—以『問學錄』和『三魚堂剩言』爲中心」, 『鹽城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7; 余龍生, 「陸隴其·陸世儀朱子學思想比較初探」, 『江西社會科學』, 2009.

2) 신재식, 「조선 후기 『大學』 연구와 陸隴其의 영향」, 『퇴계학논총』 35, 퇴계학연구, 2020.

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의의를 해명하고자 한다.

Ⅱ. 조선 후기 陸隴其 학설의 유입

육룡기는 浙江省 平湖 사람으로 자가 稼書, 호가 當湖이다. 唐나라의 명재상 陸贄의 후손으로 강희 연간에 清白吏·教育者·理學者로 명성을 떨쳤다. 사후에 孔子를 모신 사당에 배향되고 內閣學士 겸 禮部侍郎에 추증된다. 육룡기는 명말청초를 대표하는 주자학자이다. 그는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 양명학의 성행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자학적 가치관 회복을 민생과 사회 안정책으로 삼고, 경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주자학의 진리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그는 동시대 주자학자 呂留良을 존경하고 陸世儀와 더불어 ‘二陸’으로 일컬어졌다.

조선에 유입된 육룡기 저술은 『四書講義困勉錄』·『松陽講義』·『讀朱隨筆』·『讀禮志疑』·『三魚堂日記』·『三魚堂臆言』·『讀書分年日程』·『三魚堂文集』 등이다. 개인시문집인 『三魚堂文集』을 제외하면 전부 학술서이다. 육룡기의 학술서는 주자학의 허점을 보완하여 그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四書講義困勉錄』·『松陽講義』와 『讀朱隨筆』은 각각 주자의 『四書集註』·『朱子大全』을 연구한 학술서다. 『四書講義困勉錄』(浙江巡撫采進本 37권)은 彦陵 張氏의 『사서강의』의 정수를 산정하여 명말의 학설을 추가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 양명학설에 근거하여 『四書集註』를 오인한 이설에 대응하여 주자의 정설을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松陽講義』(浙江巡撫采本 12권)은 육룡기가 영수 지현 시절에 제생과 강학한 내용을 기록한 차기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를 분별하여 주자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讀朱隨筆』(浙江巡撫采進本 4권)은 육룡기가 『朱子大全』을 읽고 터득한 내용을 기록한 차기다. 주자의 정설을 발명하여 이단을 배척하는 데 목적이 있다.

『三魚堂臆言』·『讀禮志疑』·『三魚堂日記』는 육룡기의 박학 실증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저술이다. 『三魚堂臆言』(編修勵守謙家藏本 12권)은 주자의 格物致知를 계승 발전시켜 五經·四書·太極圖說·近思錄·小學·제가의 학설의 득실, 諸子百家·역사·雜事의 논설 등에 관하여 그 유래부터 실증적 방식으로 연구한 서적인데 특히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를 분별하는 데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讀禮志疑』(浙江巡撫采進本 6권)는 『周禮』·『儀禮』·『禮記』三禮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금의 전례를 비교하여 부합하지 않는 데가 있으면 한당의 학설을 취하되 주자의 설과 절충하고, 아울러 삼례의 내용을 발명할 수 있는 여타 경서의 구절을 채록하되 의혹이 남아있어 결정하지 못한 사항을 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三魚堂日記』(浙江巡撫采進本 10권)는 학술 및 정치·경제·사회·제도 등 청초의 다양한 면모를 총망라한 차록이다. 『三魚堂文集』(12권)은 육룡기의 개인 시문집으로, 경학에 관한 논의 또한 포함되어 있다. 『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3권)은 비록 육룡기의 저작은 아니지만 주자의 ‘讀書明理’를 정리하여 독서법의 조목을 상세히 만든 程端禮의 『讀書分年日程』을 육룡기가 교감한 주자학 입문서이다. 그 외에도 육룡기가 편찬한 三魯堂板 『四書大全』 40권이 있으나 유입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육룡기의 문집 『三魚堂文集』을 조선에서 처음 입수한 인물은 이의현으로 추정된다. 이의현이 정미환국으로 인해 파직되어 도산에 은거하던 1727년 기록인 『陶峽叢說』에 의하면 당시 그는 육룡기의 『稼書集』을 개인 소장하고 있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입수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720년에 동지정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것으로 보아 그때 입수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하지만 “청헌공의 『稼書集』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는 이덕무에 증언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三魚堂文集』이 조선에 유행한 시기는 1766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³⁾ 『三魚堂文集』은 이후 육룡기의 여타 저술인 『松陽講義』·『讀朱隨筆』과 함께 규장각에 소장된다. 이는 『奎章總目』·『內閣訪書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3)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3, 「天涯知己書」, “蘭公曰: ‘國朝大儒陸清獻公諱隴, 其配享孔廟, 其餘湯文正公諱斌, 李丞相光地, 魏象樞, 皆大儒希賢者也.’ 炯菴曰: ‘陸有稼書集, 行世.’” 「천애지기서」는 1766년 홍대용이 연경에 갔을 때 청나라 문사들과 교유하며 주고받은 시문·서찰·필담을 이덕무가 열독하고 발췌하여 자신의 평어를 덧붙인 것이다. 1766년 蘭公 潘庭筠이 육룡기의 약력을 홍대용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홍대용은 육룡기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대용의 다른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吳彭問答」에 의하면 홍대용은 당시 육룡기의 저술을 접하지 못하였다. (洪大容, 『湛軒書外集』 권7, 「燕記」, 「吳彭問答」, “曰: 貴處有湯斌, 陸隴其之書乎. 余曰: 未曾見. 彭曰: 湯公有四書講義四套, 此二公, 皆本朝大儒, 陸先生已從祀聖廟矣. 余曰: 兩公入仕本朝乎. 彭曰: 湯尙書, 陸御史.”) 이로써 보건대 홍대용이 1766년 청나라 문사들과의 교유를 통해 육룡기에 관한 정보를 얻고 조선에 들어와 지인들에게 전파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4)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 1책, 중화서국, 2004, 433~434면: 『奎章總目』 권4, 「別集類」, 「三魚堂

육룡기의 저술 중에 조선 학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四書講義困勉錄』과 『松陽講義』이다. 비록 애초에 李沆霖의 『條辨』을 통해 접하지만 그의 학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자 해당 저술까지 수입한 것이다. 『松陽講義』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규장각에 소장되었다. 李沆霖의 『條辨』이나 육룡기의 자호로 거론한 사례를 제외하고 『四書講義困勉錄』 서명을 거론한 인물은 윤행임이다. 윤행임은 『孟子』 「告子上」의 ‘生之謂性’에 대한 해석에서 『四書講義困勉錄』의 설을 서명과 함께 인용한 뒤 “性理를 터득함이 몹시 정묘하다.”는 평가를 남겼다.⁵⁾ 이로써 『四書講義困勉錄』이 당시 경화세족 일각에 유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육룡기의 저술로는 『四書講義困勉錄』·『松陽講義』·『三魚堂臆言』·『讀朱隨筆』 등의 서적이 있다. 나는 그 서적들을 두루 살피지 못하였지만 그 문집을 얻어 보았다.”는 김매순의 증언이 그것이다. 『三魚堂臆言』은 전우가 인용한 흔적을 남겼다.⁶⁾ 그 외에도 『三魚堂日記』·『讀禮志疑』·『讀書分年日程』 등이 있지만 『三魚堂日記』는 성해응의 인용,⁷⁾ 『讀禮志疑』는 이규경의 인용⁸⁾ 외에는 없고, 『讀書分年日程』은 이덕무의 소개 뿐 유통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⁹⁾ 이를 통하여 조선 학계에서 육룡기의 저술이 유통되고 그 학설이 전파된 경위를 알 수 있다.

集, “三魚堂集 八本 清 陸隴其 著 總十九卷.”; 앞의 책, 66~67면: 『奎章總目』 권1, 「四書類」, 「松陽講義」, “松陽講義 四本 清 當湖 陸隴其 著.”; 앞의 책, 532~533면: 『內閣訪書錄』 권2, 「讀朱隨筆」, “讀朱隨筆 清 陸隴其 撰.”

- 5) 尹行恮, 『碩齋稿』 권4, 「薪湖隨筆(1801) 『孟子』下」, “困勉錄曰: ‘孟子以生之理爲性, 則非徒人物之性不同, 且人物之生, 先不同也. 告子以生爲性, 則人物之生, 初無異也, 人物之性, 亦不得謂有異.’ 此說覷得性理甚精妙.”
- 6) 田愚, 『艮齋先生文集後編續』 권3, 「與徐鎮英(1921)」, “三魚堂臆言曰: 朱子諸封事, 人但見其一味正直, 然其中仍有一段忠厚和平之意在, 所以後來雖危, 而不至于嬰禍.”; 『艮齋先生文集後編續』 권3, 「與金鍾熙」. “陸稼書臆言言: ‘春王正月之說, 當折衷于程朱, 是周正, 非夏正.’”
- 7)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권33, 「尊攘類○丁未傳信錄○問答上」, 「漂人問答[李墳]」, “顧寧人炎武詩有云‘萬里風烟通日本, 一軍旗鼓向天涯’之句, 解見陸隴其三魚堂日記.”
- 8)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論禮類」, 「追尊」, 「尊所生母辨證說」, “三魚堂陸稼書隴其[清從祀文廟] 曰: ‘此不見經, 是朱子以義起之. 朱子答賓, 若避嫡母之若字, 恐有變通之義, 若不避嫡母, 則當稱妣矣, 嫡母在日, 不敢得稱, 若無嫡母, 則可以稱妣於其家, 似無犯分之嫌歟.’” 이는 陸隴其의 『讀禮志疑』 권3에 보인다.
- 9)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55, 「盡業記 2」, 「羣經字數」, “陸隴其曰: 讀書分年日程三卷 …… 余故校而梓之.”

Ⅲ. 陸隴其 학설에 대한 조선 학계의 반응

1. 陸隴其 학설의 수용

육룡기에 대하여 조선 지식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홍대용은 “국조의 大儒로서 청헌공 육룡기는 孔廟에 배향되었다.”¹⁰⁾는 반정균의 소개를 받았고, 이덕무는 “지금 크게 순정하고 하자가 없는 학자로 이광지와 육룡기 두 선생만한 분이 얼마나 되는가”¹¹⁾는 질문을 하였고, 박지원은 청나라에 “육룡기 · 이광지의 학문이 있다”고 인식하였고,¹²⁾ 서형수는 육룡기 경학에 견주어 기운의 학문을 칭송하였다.¹³⁾ 홍석주는 “근래의 육룡기 등은 주자학에 대한 존송을 조금도 잃지 않고 우익 발휘하니 그 공로가 가장 크다.”¹⁴⁾ 하였고, 김매순은 “근래의 중국의 유자로서 오직 육룡기가 가장 순정하고 실천이 있으니 천하에서 정주학을 전공한 자들이 흠연히 존경하였다.”¹⁵⁾ 하였고, 홍직필은 “청나라 유학자로서 학술이 순정한 자로는 육룡기 · 탕빈 · 웅사리 세 사람만한 이가 없다.” 하였고, 조공섭은 “成渾 · 李珥 이하는 偏邦의 규모와 식견에 불과하니, 그 正大精微와 高明博達을 어찌 육룡기 · 장리상의 율타리에 미치기 바라리오.”¹⁶⁾ 하여 육룡기 주자학의 심오한 경지를 극찬하였고, 김영작은 육룡기

-
- 10) 洪大容, 『湛軒書外集』 권2, 「杭傳尺牘」, 「乾淨衙筆談」, “蘭公曰: ‘國朝大儒陸清獻公諱隴, 其配享孔廟.’”
- 11)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19, 「雅亭遺稿11〇書5」, 「潘庭筠」, “當今學者, 大醇無疵, 如李榕村陸稼書兩先生者, 爲幾人耶.”
- 12) 朴趾源, 『熱河日記』, 「駟汎隨筆」, “曰: 皇帝也薙髮, 將相大臣百執事也薙髮, 士庶人也薙髮, 雖功德侔殷周, 富強邁秦漢, 自生民以來, 未有薙髮之天子也, 雖有陸隴其 · 李光地之學問, 魏禧 · 汪琬 · 王士禛之文章, 顧炎武 · 朱彝尊之博識, 一薙髮則胡虜也, 胡虜則犬羊也, 吾於犬羊也何觀焉, 此乃第一等義理也, 談者默然, 四座肅穆.”
- 13) 徐澐修, 『明阜全集』 권14, 「紀曉嵐傳」, “顧寧人之博洽, 魏叔子之文章, 陸稼書之經學, 爲本朝三大家, 而閣下以一人兼有之, 甚盛甚盛.”
- 14) 洪奭周, 『淵泉集』 권16, 「答費吉士蘭墀書」, “近世陸稼書諸公, 瓚享紫陽, 分寸不失, 羽翼發揮, 厥功最鉅.”
- 15) 金邁淳, 『臺山集』 권17, 「闕餘散筆」, 「榕村第三」, “近世中州儒者, 惟陸三魚隴其, 最爲醇正, 且有踐履實行, 海內爲程朱之學者, 翕然宗仰.”
- 16) 曹兢燮, 『巖棲集』 권8, 「與金滄江(1918)」, “自牛栗以下, 終是偏邦規模見識, 其正大精微高明博達, 安望其及於陸三魚張楊園之藩籬哉.”

의 저술을 읽고 주자학에 눈떴음을 고백하였다.¹⁷⁾ 이로써 명말청초 주자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육룡기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학계에서 주자학자 육룡기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육룡기 학설은 이른 시기에 조선에 유입되었다. 특이한 것은 그 계기가 당사자의 저술이 아니라 다른 학자의 학술서라는 데 있다. 그 학술서는 李沛霖의 『四書朱子異同條辨』(이하 『條辨』)이다. 이패림은 명말청초 주자학자로서 주자학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천한 인물이다. 그의 『條辨』은 宋·元·明·淸의 주자학파의 학설을 주자의 정설에 맞추어 같은 설과 다른 설로 구분하여 조목대로 수록하고 변별한 연구물이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 서적을 통해 역대 주자학파의 다양한 학설과 이론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條辨』은 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행 사절단을 통해 조선에 유입되어 노론계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四書 연구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한다. 당시 노론계 학자들이 주자 설의 초년과 만년의 모순을 해결하고 그 정설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條辨』이 그에 적절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條辨』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된다.¹⁸⁾ 그 과정에서 육룡기 학설에 대한 이패림의 평가를 발견한 것이다.

더구나 육룡기의 문묘 배향 역시 그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옹정제는 즉위한 그 해에 孔子의 5世祖까지 王으로 추봉한 뒤 崇聖祠로 명칭을 고치고, 아울러 예전에 문묘에 배향되어 있던 유학자 6인을 출향한 뒤 유학자 28인을 추가로 배향한다.¹⁹⁾ 추가로 선정된 학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옹정제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공자와 맹자의 제자 및 한나라의 제갈량을 제외한 나머지, 尹焞·魏了翁·黃幹·陳淳·何基·王柏·趙復元·金履祥·許謙·陳澧·羅欽順·蔡清·陸隴其 등은 宋·元·明·淸의 성리학자로 주자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 즉 문묘의 확장과 배향된 인물

17) 金永爵, 『邵亨文稿』 권1, 「與成綱齋序」.

18) 당윤희, 「『四書朱子異同條辨』의 조선으로의 전래와 영향에 대한 일고」, 『중국어문학지』 40, 중국어문학회, 2012 참조.

19) 李瀾, 『星湖僊說』 권10, 「人事門」, 「追封孔子五世」, “雍正元年, 追封孔子五世, 木金父公爲肇聖王, 祈父公爲裕聖王, 防叔公爲貽聖王, 伯夏公爲昌聖王, 叔梁公爲啓聖王, 改啓聖祠爲崇聖祠, 增祀宋張載父張迪. 太學黜祀者六人林放·蘧瑗·榮冉·顏何·范甯·鄭玄, 增祀孔子弟子縣亶·牧皮·孟子弟子樂正克·公都子·萬章·公孫丑·漢諸葛亮·宋尹焞·魏了翁·黃幹·陳淳·何基·王柏·趙復元·金履祥·許謙·陳澧·明羅欽順·蔡清·淸陸隴其共二十八人. 縣亶牧皮爲孔子弟子未有明證. 亶似是禮記所謂縣子也, 其所去取多未愜, 後世必有改定者.”

을 통해 주자학을 국시로 내건 옹정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가운데 청나라 학자로서 유일하게 육룡기가 선정되었으니, 주자학 통치이념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육룡기는 실제로 “지금 국가에서 正學을 존숭하여 주자학에 속하지 않는 설을 모조리 물리쳐 나오지 못하게 하니 주자학을 돕는 서적이 점차 유행하였다.”²⁰⁾ 하여 청나라의 주자학 진흥책을 극찬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청나라 뿐 아니라 조선 학계 역시 주자학을 중시하는 청나라 조정의 동향을 파악하기에 이르고, 그 핵심인물인 육룡기와 그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²¹⁾ 그러면서 동시에 육룡기 학문의 목적이 주자학의 정통 확립과 이단 배척에 있음을 파악하고 주자학 연구에 그 학설을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지식인이 수용한 육룡기 학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단 배척을 위한 이설 검토와 비판이고, 또 하나는 주자학의 정통 확립을 위한 주자 설 해명과 보완이다. 우선 육룡기의 이설 검토와 비판을 보자. 주지하다시피 주자학의 이단은 양명학이고, 육룡기의 주요 비판대상 역시 양명학이다. 이의현은 “육룡기가 지은 문장 역시 독실하거나 양명학 배척에 힘쓰니 숭상할 만하다.”²²⁾ 하였고, 김매순은 “그 문집을 얻어 보니 「學術辨」 3편과李子喬·湯潛庵 등에게 보낸 여러 서찰에서 姚江과 新會의 禪學을 빌려 유학을 혼란 시킨 폐단을 지극히 논하였다. …… 중국이 멸망하고 이설이 분분한 시기에 이러한 부류의 의론은 참으로 障河의 지주라 하겠다.”²³⁾ 하였고, 조공섭은 “『明史』를 처음

20)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55, 「叢葉記2」, 「羣經字數」, “陸隴其曰 …… 今國家尊崇正學, 諸不在朱子之術者, 皆擯不得進, 羽翼朱學之書, 以次漸行.”

21) 조선 학계에서 육룡기 문묘 배향을 대서특필한 인물로는 이익·황재·이만수·이갑·서호수·서유문·이규경 등이 있다. 黃梓, 『甲寅燕行錄』 권2, 「度關錄(1734)」; 李瀛, 『星湖僊說』 권10, 「人事門」, 「追封孔子五世」; 『星湖先生全集』 권20, 「答尹幼章(1753)」; 李埤, 『燕行記事』 하, 「戊戌年(1778)」; 徐浩修, 『燕行紀』 권2, 「庚戌年(1790)」; 徐有聞, 『戊午燕行錄』 권5, 「己未年(1799)」; 李晚秀, 『展園遺稿』 권12, 「輜車集」, 「記行(1803)」; 미상, 『薊山紀程』 권3, 「留館(1803)」;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天文類」, 「日月星辰」, 「分野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論學類」, 「心性理氣」, 「格物辨證說」.

22) 李宜顯, 『陶谷集』 권28, 「陶峽叢說(一百四則)」, “陸隴其 … 所著文字, 亦似篤實, 且力斥陸王之學, 可尙也”

23) 김매순, 『臺山集』 권17, 「闕餘散筆」, 「榕村第三」, “陸三魚隴其 …… 得其文集而讀之, 學術辨三篇, 與李子喬湯潛庵諸書, 極言姚江新會假禪亂儒之弊 …… 當神州陸沈, 異言喧囂之日, 此等議論, 洵足謂障河砥柱.”

찬수할 때 육룡기·장열 등이 「道學傳」을 만들지 않고자 하였는데, 양명의 무리가 편입될까 우려하였기 때문이다.”²⁴⁾ 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조선 지식인이 육룡기의 양명학 비판에 주목한 것은, 육룡기가 명말청초 학계의 동향 및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매순이 살핀 「學術辨」과 「答嘉善李子喬書」에서 육룡기는 명말청초 학계를 이렇게 진단하였다. “周나라와 宋나라의 쇠퇴는 孔·孟과 程·朱의 道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明나라의 쇠퇴는 陽明의 道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嘉靖·隆慶 이래로 국정을 맡고 백성을 기르는 자로서 누군들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았던가. 처음에 아래에서 창도하더니 뒤이어 끝내 위에서 유지되고, 처음에 의론이 되고 聲氣가 되더니 뒤이어 끝내 정사가 되고 풍속이 되니, 예법이 해이해지고 명교가 경시되며 정형이 문란해지고 僻邪詭異의 소행이 생겨나고 縱肆輕狂의 악습이 성행하였다. 그들이 비록 喪亂의 연고가 여기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 나는 믿지 않는다.”²⁵⁾, “陽明 王氏가 良知의 설을 창도하여 禪學의 실체로 儒家의 명칭을 가탁하고, 또 「朱子晚年定論」을 편집하여 자신의 학설이 주자와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龍溪·心齋·近溪·海門의 무리가 따라 부연하니, 王氏의 학문이 천하에 두루 미쳤다. 그들은 거의 성인이 다시 흥기하였다고 여겼으나 옛 성현의 下學上達의 유법이 남김없이 멸렬하니 학술이 무너지고 풍속이 폐하였다. …… 그러므로 내 생각에 명나라 천하는 도적에 의해 망한 것도 아니고 봉당에 의해 망한 것도 아니라 학술에 의해 망한 것이다.”²⁶⁾, “고현성·고반룡 역시 姚江의 율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니 주자를 존송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주자의 정맥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²⁷⁾

24) 조공섭, 『巖棲集』 권8, 「與金滄江(1918)」, “明史之始修也, 陸稼書·張武承諸人欲勿立道學傳, 蓋恐陽明輩之得入也.”

25) 육룡기, 『三魚堂文集』 권2, 「學術辨下」, “周末之衰, 孔孟程朱之道不行也, 明之衰, 陽明之道行也. 自嘉隆以來, 秉國鈞作民牧者, 孰非浸淫於其教者乎. 始也倡之於下, 繼也遂持之於上, 始也為議論為聲氣, 繼也遂為政事為風俗, 禮法於是而弛, 名教於是而輕, 政刑於是而素, 僻邪詭異之行於是而生, 縱肆輕狂之習於是而成, 雖曰喪亂之故, 不由於此, 吾不信也.”

26) 육룡기, 『三魚堂文集』 권2, 「學術辨上」, “自陽明王氏倡為良知之說, 以禪之實而託儒之名, 且輯朱子晚年定論一書, 以明己之學與朱子未嘗異, 龍溪心齋近溪海門之徒從而衍之, 王氏之學徧天下幾以為聖人復起而古先聖賢下學上達之遺法滅裂無餘學術壞而風俗隨之其弊也 …… 故愚以為明之天下, 不亡於寇盜, 不亡於朋黨, 而亡於學術.”

27) 육룡기, 『三魚堂文集』 권5, 「答嘉善李子喬書」, “涇陽景逸, 亦未能脫姚江之藩籬, 謂其尊朱子則可,

명말청초 학자들은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 주자학의 쇠퇴에 있고, 주자학 쇠퇴의 원인이 양명학의 성행에 있다고 여겼다. 개인성을 강조하는 양명학적 사유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주자학적 질서를 해체하여 명나라의 멸망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려면 주자학적 가치관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말청초 사회에서 양명학의 여파는 강하였다. 단지 양명학과만이 아니라 주자학과조차도 육구연 이래로 심학파의 이론에 오염되어 있었다. 이는 주자학의 본질을 오인하게 하여 주자학의 정통성과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주자학 진흥을 위해서는 양명학을 이단으로 배척해야 하였고, 양명학 배척을 위해서는 주자학에 침투된 양명학의 흔적을 제거해야 하였다.²⁸⁾ 이것이 육룡기 학문의 핵심인데, 주자학을 존송하던 조선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요소가 다분하다. 육룡기의 이단 비판에 대하여 윤행임이 “性理를 터득함이 몹시 정묘하다. 오늘에 고자의 의론을 주장하는 자는 저도 모르게 이단에 귀의하면서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호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²⁹⁾

그렇다면 과연 조선 지식인은 육룡기 학설에서 무엇을 취하였는가. 양명학을 위시한 역대 이설을 전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안은 주자의 『大學章句』 개정에 관한 견해이다. 주자는 『古本大學』에 착간과 결문이 있다고 판단, 그 순서를 개정하고 格物致知補亡章을 추가하여 經1장과 傳10장의 체제로 구성된 『大學章句』를 편찬하여 주자학의 논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면 왕수인은 『大學章句』의 경전을 부정하고 『古本大學』의 체제에 의거하여 陽明學의 논리 체계를 구축한다.³⁰⁾ 문제는 일부 주자학자들도 양명학의 영향을 받아 『古本大學』의 체제를 따랐다는 것인데, 이는 주자학의 근간을 주자학자 스스로 부정한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³¹⁾ 이러한 이유로 명말청초의 주자학자들은 양명학

謂其爲朱子之正脈則未也.”

28) 신재식, 「正祖朝 經學의 顧炎武 經說 수용 양상」,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7, 34~37면 참조.

29) 윤행임, 『碩齋稿』 권4, 「薪湖隨筆『孟子』下」, “困勉錄曰: ‘孟子以生之理爲性, 則非徒人物之性不同, 且人物之生, 先不同也. 告子以生爲性, 則人物之生, 初無異也, 人物之性, 亦不得謂有異.’ 此說覲得性理甚精妙. 今之主告子之論者, 自不覺其歸於異端, 殊莫曉也.”

30) 김유곤, 「한국 유학의 『大學』 체제에 대한 이해(2)-고본대학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6, 동양철학연구회, 2011, 9~13면 참조; 임홍태, 「王守仁의 大學觀 연구」, 『동양고전연구』 35, 동양고전학회, 2009, 332~334면 참조.

31) 신재식, 「조선 후기 지식인의 李光地 수용과 비판」,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2017 참조.

의 비판에 맞서 주자학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선 『大學章句』 체제의 타당성부터 입증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었다.

육룡기는 『大學章句』 개정에 대한 변호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주자가 경전을 함부로 고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육룡기는 ‘경전이라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 따르는데 『大學』의 경우 이치를 논한 책이라 정정할 수도 있다’, ‘주자는 『大學』을 개정하되 구본의 흔적을 남겼는데, 이는 漢의 훈고학의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주자 이후의 『大學』 개정에 대해서도 ‘정주학이 있으면 괜찮지만 정주학이 없으면 무단’이라는 단서를 덧붙인다. 이에 이규경은 육룡기 설에 동의하는 한편 “갑론을 박하기만 하고 끝내 결론이 없어서 『大學』이 논란의 안건이 되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하여 『大學章句』에 대한 중국 학계의 논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³²⁾

특히 육룡기는 『大學章句』 개정의 핵심인 格物致知補亡章 해명에 집중한다. 주자는 전5장 1절 ‘此謂知本’을 衍文으로 전5장 2절 ‘此謂知之至也’를 格物致知傳의 결어로 여겨 상단부의 망실로 파악하고 格物致知補亡章을 추가하여 결어 위에 배치한다.³³⁾ 하지만 元·明의 성리학자들은 주자의 格物致知補亡章을 부정한다. 경과 전의 구분을 인정한 학자들도 주자의 보망장을 부정하여 경문 내의 여러 구절을 연결지어 격물치지전을 재구성하고, 왕수인은 주자의 경과 전의 구분을 부정하고 주자가 연문으로 파악한 경문인 ‘知本’으로 ‘格物’을 해석하여 ‘良知’의 설을 부연하는데, 이는 고현성과 이광지 등 일부 주자학자도 따랐다. 따라서 주자의 격물치지보망장을 변호하려면 ‘格物’의 의미만이 아니라 『古本大學』의 본문으로 보망장의 선후에 있는 ‘此謂知本’·‘此謂知之至也’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하였다. 육룡기는 『大學章句』의 전후 맥락을 근거로 삼강령과 팔조목의 관계 및 주자의 ‘格物’ 해석을 부연하여 ‘此謂知本’·‘此謂知之至也’·‘格物’ 등에 대한 元·明의 성리학설과 양명학설의 오류를 일

32)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〇經傳類」, 「大學辨證說」, “陸三魚隴其『大學答問』: ‘或問……程朱敢改『孝經』·『大學』, 可乎. 曰……『孝經』·『大學』言理之書, 理則可以類推, 或傳疑, 或更定, 固各有其道也. 曰: 漢儒校經, 首禁私易……曰: 朱子何嘗不如是. 『大學』雖經更定, 而仍一一注其下曰: 舊本在某處, 此即漢儒之意也. 曰: 然則程朱以後諸儒, 重定『孝經』·『大學』者多矣, 亦有可取者乎. 曰: 有程朱之學則可, 無程朱之學則武斷而已’云. 此中原諸儒之所論, 豈至于此哉. 甲乙互爭, 終無湊泊, 『大學』一書, 反作聚訟之案, 可不懼哉.”

33) 김유곤, 앞의 2011 논문, 11면 참조.

일이 논박한다. 이에 이규경은 “육룡기가 ‘格’자를 해석하였는데 그 의미가 가장 상세하다.” 하고, 김매순은 “유독 육룡기만 양명학설의 실책을 힘써 논변하였는데 이 의론이 가장 강인의 의의라”고 호평한다.³⁴⁾

같은 맥락에서 육룡기는 『小學』 편찬의 명분 역시 긍정한다. 「大學章句序」에서 주자는 ‘夏·殷·周 三代에 소학과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는 窮理正心修己治人의 도를 가르치는 대학에 앞서 灑掃應對進退의 예절을 가르치던 소학의 가르침을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小學』을 편찬한 바 있다. 그런데 明·淸에 이르러 일각에서 주자의 『小學』을 부정하는 고증학설이 제기되었다. 소학이란 용어가 원래 문자학이란 의미로만 쓰였는데 『小學』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육룡기는 『禮記』·『白虎通』·『尚書大傳』·『大戴禮記』 등 漢의 문헌을 근거로 소학이란 용어가 문자학과 동자학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규경이 육룡기의 이 설을 가리켜 “논자의 병통을 적증시켰다.”고

34) 김매순, 『臺山集』 권15, 「闕餘散筆」, 「天之第一」, “元明間, 諸儒多以爲格致傳未嘗亡, 董氏槐以經文知止物有二節及聽訟章爲格致, 傳結之以此謂知之至也, 蓋謂知本, 卽是格物, 卽是知之至, 乃堯舜不徧物之意, 蔡虛齋諸公, 畧有參差, 而大體無異, 王陽明盡舍諸說, 一從古本, 謂大學初無經傳, 亦無衍闕, 隆萬以來, 其說大行, 明末顧涇陽, 近世李榕村, 名爲尊朱斥王, 而至於知本之爲格物, 則墨守膏肓, 牢不可破, 獨陸三魚隴其力辨其失曰: ‘聖賢之學, 本末兼該, 雖有先後之序, 而非可偏廢也, 如謂知本, 卽是知之至, 則是一本之外, 更別無學, 以綱領言之, 但當知有明德, 而不必復講新民之方也, 以條目言之, 但當知有誠正修, 而不必復講齊治平之道也, 可乎, 故謂本之當先務則可, 謂知本而不必更求末則不可, 堯舜之不徧物, 是言治天下, 當以親賢爲急, 乃是論緩急, 非論本末, 豈大學知本之謂乎, 董蔡二儒, 將此二句, 強作不徧物之解, 未免稍偏, 然其所認爲本者猶未差, 若陽明之復古本, 則不過欲借知本二字, 自伸其良知之說, 其所認爲本者, 又非董蔡之所謂本矣, 此論最強人意.’”;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論學類」, 「心性理氣」, 「格物辨證說」, “淸陸隴其 [字稼書, 號三魚堂, 平湖人, 康熙進士, 官御史, 從祀文廟, 解格字, 其義最詳, 三魚格物說: ‘或問: ‘…… 至若朱子, 解作窮至, 宋後爲字書者, 如元人黃公紹輩, 皆迎合朱子之意, 而又爲小變, 改作窮究, 非古義矣, 朱子借古義至字而加窮字, 後人取新義窮字而去至字, 何至據『玉篇』·『廣韻』諸書作量度解爲妥乎.’ …… 曰: ‘至也者, 卽量度之至也, 究也者, 卽至之盡頭處也, 義本相通, 何得以朱子之解, 與陽明一例議之乎’ 又曰: ‘或問: ‘王心齋『語錄』云: 格物者, 格其物有本末之物, 致知者, 致其知所先後之知, 其說如何’ 曰: ‘家國天下皆物也, 身心意亦物也, 格物之本, 則於身心意求明德之事, 格物之末, 則于家國天下求新民之事, 謂格物之物, 卽物有本末之物, 固無不可顧, 程子有云: 求之情性, 固切于身, 然一草一木, 亦皆有理, 不可不察, 此最說得周密, 不教人泛求天下之物, 亦不教人盡却天下之物, 一草一木, 非必一一察之, 然亦當觸目而識其理, 安得拘定, 且卽以格物之物, 專就身心意家國天下言之, 與物有本末之物, 亦有綱領條目之分, 亦不得混而一之也, 至于知所先後知字尚淺, 在知行之前, 又何得扯入致知內.’” 又曰: ‘自陽明而後, 專以知本爲格物者, 皆不可究詰.’”

호평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된 주자 설을 긍정한 점 때문인 듯하다.³⁵⁾

이설 비판에 있어 양명학설 외에 주목할 것은 『四書大全』의 소주다. 소주란 주자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편찬자 胡廣 등이 주자주 아래에 세필로 부기한 잔주인데, 여러 저술에서 언급된 주자와 문인의 설 및 원나라의 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四書集註』의 주자주의 내용과 어긋나는 문인의 설, 원나라의 설, 주자의 설도 무분별하게 수록된 탓에 도리어 『四書集註』 이해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자의 설을 오인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켰다.³⁶⁾ 이에 육룡기는 대전본 소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자의 설에 입각해서 黃幹의 明德分屬說, 胡炳文的 庸人說, 饒魯의 仁孝讓悌說 등의 오류를 논박하는데, 김종후·김조순·유숙기·김정묵 등은 육룡기 설이 주자의 의도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 『大學章句』 해석에 수용한다.³⁷⁾ 이처럼 육룡기의 이설 비판은 주자의 설을 준거로 삼고 있다.³⁸⁾ ‘春王正月의 설은 程朱의 설을 절충해야 한다’는 육룡기의 견해에 대하여 전우가 “가장 근거가 있다. 지금 후생의 신학이 왕왕 억측하여 정주에서 증거를 취하려 하지 않는데, 나는 이를 몹시 잘못이라 여긴다.”³⁹⁾고 호평한 것도 이 때문인 듯하다.

35)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經傳類」, 「小學」, 「小學古今二學辨證說」, “愚竊以爲竹垞此言, 乃斯言之玷也. 六書之日微, 其果紫陽『小學』而然歟. 清陸三魚堂隴其, 嘗辨小學有二道曰: 或問: 古之小學, 乃寫字之學, 非泛指小子之學也, 自朱子認爲童學, 且急著爲書, 而嗣是以後, 如王應麟『小學紺珠』·馬端臨『通考』·焦竑『經籍考』, 皆不以小學專屬字學, 是一補傳, 而大學本亡, 大學本亡, 而小學且與之俱亡, 是不可惜乎. 曰: 字學, 固小學也, 一切童子之學, 皆小學也, 是其名固竝行而不相悖也, 故『漢書·藝文志』所云凡小學十家四十五篇者, 此專指字學也. 若『王制』·『白虎通』·『尚書大傳』·『大戴·保傳篇』所云小學, 則泛指童子之學也. 從來解經者, 未嘗以此而廢彼, 安在其亡耶, 而又何病乎朱子『小學』書也. 三魚此說, 適中言者之病也.”

36) 신재식, 앞의 2017 논문, 11면 참조.

37) 金鍾厚, 『本庵集』 권11, 「筭錄○大學」(傳六章), “凡永樂本經書小註誣謬者多, 陸隴其之詬斥固宜.”; 정조, 『弘齋全書』 권70, 「經史講義70大學4(丙午)」, 「傳首章」, “祖淳對: ‘勉齋分配明字德字之說, 先儒陸隴其嘗辨其誤 …… 此說得之矣.’”; 유숙기, 『兼山集』 권20, 「筭疑」, 「大學筭疑(辛未)」, 「傳八章」, “傳八章, 小都梁曰: ‘胡雲峯因章句衆人常人, 謂指泛常庸人, 不指君子, 故有偏病, 此却非也, 章句蓋指大槩人情如此. 稼書謂正心以後, 猶難言之, 故天下鮮, 此最得朱子之意.’”; 김정묵, 『過齋遺稿』 권3, 「經書辨答補遺」, 「大學」, “一家仁(止), 一人定國章句下小註雙峰饒氏說. 按: 陸氏稼書曰: ‘孝悌慈之藹然者仁, 秩然者讓, 不必仁屬孝, 讓屬悌, 此言恐得之.’”

38) 신재식, 앞의 2020 논문, 151~164면 참조.

39) 전우, 『艮齋先生文集後編續』 권3, 「與金鍾熙」, “陸稼書贖言言: ‘春王正月之說, 當折衷于程朱, 是周正, 非夏正’. 余謂此最有據, 今後生新學, 往往臆斷, 不欲取證于程·朱, 余甚不韙焉.”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육룡기 학설은 경전에 대한 훈고와 의리가 조화를 이룬다. 이는 주자의 道問學에서 나온 것이다. 주자는 인간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만물이 공유한 객관적 理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겼다. 그러므로 객관적 理를 궁구하기 위하여 독서를 통한 지혜의 확장을 도모하는 道問學의 방식을 중시하는데, 이는 경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尊德性을 중시하는 양명학이 성행하자 주자학과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주자학의 대의를 오인하고 사변적 관념론을 추구하면서 경전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니, 주자학의 진리성이 손상을 입었다. 따라서 주자학의 진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명학을 위시한 역대 이설을 검토하여 그 허점을 반박하고 주자의 정설을 실증적 근거를 통해 입증하는 해명이 필요하였다. 이는 주자학의 진리성 확보를 목적으로 주자의 정설을 해명하려 한 조선 학계의 주자학 연구에 보탬이 된다. 때문에 조선 지식인은 이러한 육룡기의 실증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 것이다.

2. 陸隴其 학설의 비판

육룡기 학설이 유입되었을 때 조선 지식인은 청나라 조정의 주자학 진흥책과 관련하여 주자학자 육룡기의 문묘 배향과 그 실증적 연구 성과에 주목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육룡기가 추구한 연구 목적, 주자학의 정통 확립과 이단 배척은 주자학 연구가 심화되어 가던 조선 학계의 호감을 살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만 보면 육룡기에 대한 조선 학계의 인식이 호평 일색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육룡기를 비판하기 시작한다. 무엇 때문인가. 공교롭게도 그 이유 역시 주자학이다. 육룡기의 주자학은 실천과 괴리가 있었다. 홍직필과 김매순은 “육룡기의 무리는 孔子와 朱子를 외고 본받는다고 자칭하더니 한인으로서 이민족에 출사하였다. 공덕을 찬송하면 요순에 견주어 높이고 지우를 과장하면 풍운 처럼 격양되어 아픔을 참고 원한을 품으려는 뜻이 다시는 없었으니 참으로 인간의 수치스런 일을 전혀 모르는 듯한 자이다.”⁴⁰⁾ “육룡기는 다만 승정의 유민으로서

40) 洪直弼, 『梅山集』 권27, 「送姜文老遊燕序(戊寅)」, “如徐乾學·李光地·熊賜履·陸隴其之徒, 自謂誦法孔·朱, 而紅兜馬蹄, 翱翔于穹廬之中, 贊頌功德則比隆唐虞, 誇張遭逢則激昂風雲, 無復忍痛含冤底意思, 真不識人間羞恥事者.”

강희 연간 조정에서 출사함을 면하지 못하니, 한스러운 일이다.”⁴¹⁾ 하여, 주자학자를 자처하면서 청나라 통치에 협력한 전적을 문제시한다. 그리고는 “피발과 죄임이 성인이 되고 현자가 됨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마는 우리 孔子께서 공공연히 ‘관중이 없었더라면’이라고 탄식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春秋』의 의리에 ‘현자에게 완비하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육룡기처럼 현명하다면 완비하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⁴²⁾ 하여, 주자학자라는 명성에 걸맞는 도덕성을 요구한다. 말하자면 이민족 통치에 협력한 육룡기의 부도덕한 행적이 한족 중심의 질서를 추구하는 주자학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서 반감을 가진 것이다.

육룡기의 행적 뿐 아니라 그 학설에 대한 의혹과 비판 역시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는 보다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육룡기의 학설이 주자학의 핵심인 『四書集註』의 주자주를 보완하고 그 정설을 해명한 까닭에 조선 학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와 상반되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 학계에서 육룡기 학설을 접한 계기는 그와 동시대 학자인 이패림의 『條辨』이었다. 이패림은 육룡기 학설을 채록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남겼고, 조선 지식인은 이패림의 평가를 통해 육룡기 학설을 접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육룡기에 대한 비판 역시 단지 육룡기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패림을 위시한 명말청초 학술에 대한 인식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패림 등에 대한 인식은 육룡기에 대한 비판을 이해하는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하는 김종정, 이현익, 홍석주의 말이다.

김종정 『中庸集說』 범례: 『中庸輯註』에 수록된 여러 학설이 비록 자못 상세함을 다하나 그 선별이 정밀하지 않아서 혹 마땅히 수록되어야 하는데도 수록되지 않은 것도 있고, 마땅히 수록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수록된 것도 있다. 육룡기 또한 元·明代의 여러 학설을 추가로 채록하였는데 너무 번잡함에 상하여 도리어 혼란을 더하였다.⁴³⁾

41) 김매순, 『臺山集』 권17, 「闕餘散筆」, 「榕村第三」, “陸三魚隴其 … 但其以崇禎遺民, 不免濡跡於康熙時, 爲可恨耳.”

42) 김매순, 『臺山集』 권17, 「闕餘散筆」, 「榕村第三」, “被髮左衽, 何妨於爲聖爲賢, 而吾夫子恐恐然有微管之歎, 何也, 春秋之義, 責賢者備, 賢如稼書, 不得不責之備也.”

43) 金鍾正, 『雲溪漫稿』 권15, 「筭錄」, 「中庸集說」, 「凡例」, “中庸輯註所載諸說, 雖頗詳盡, 然其揀別不

이현익 『論語說』 서문: 이패림의 설은 그 터득한 데가 많지만 대개 너무 자세하고 번잡하다. 또 그 터득한 데도 대체로 문의 사이에 있어 의리와 원두에 관한 데가 전부 다 명백투철하지 못하다. 채청과 여유량 등의 설 또한 전부 이와 같으니, 대전본 소주의 제설과 비교하면 그 평실간정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천착비무가 많다. 이로써 유학자의 학문 역시 수나라 이래로 증원의 유학의 전수에서 대단히 불만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⁴⁴⁾

홍석주: 근래의 육룡기 등은 주자를 존숭함을 추호도 잃지 않고 우익하고 발휘하니 그 공로가 가장 크다. 하지만 구구한 내 생각에 그래도 그 자구 사이에 분석이 너무 조밀한 탓에 혹 口耳支離의 폐단을 열어서 도리어 강서 지역 학자들의 공격과 배척의 구실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⁴⁵⁾

요컨대 육룡기를 위시한 명말청초 학설은 검토한 학설도 많고 터득한 견해도 많지만 학설에 대한 선별이 정밀하지 못하고 자구에 대한 분석이 번잡한 나머지 도리어 주자 학설의 대의를 놓쳐서 학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양명학파에게 주자학 비판의 구실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육룡기 학설에 대한 비판 역시 주자학의 정통 확립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구에 대한 분석이 번잡한 나머지 주자 학설의 대의를 놓쳤다’는 지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경전의 자구에 대한 분석에 천착한 나머지 주자의 『四書集註』의 대의를 간과한 문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사례는 『中庸章句』 서·1장·4장·6장·32장·『大學章句』 체제·『論語集註』 「雍也」 등의 설에 보인다.

주자의 「中庸章句序」의 ‘虛靈’과 ‘知覺’에 대하여 육룡기는 程若庸의 설을 부연하여 “虛靈이 體고 知覺이 用이다.” 하였다. 이에 황기전은 ‘육룡기의 분석이 너무 지나쳐 주자의 본지가 아니라’고 비판한다.⁴⁶⁾ 1장 ‘致中和’에 대하여 육룡기는 ‘致和가

精，或有當載而不載，不當載而載者。陸稼書又添錄元明諸儒說，而傷於太繁，反增贅亂。”

44) 李顯益, 『正菴集』 권9, 「論語說上」, 「序」, “都梁說, 其得處固多, 然大抵太纖密繁絮, 且其得處多在文義間, 若義理源頭肯綮, 則未必皆明白透徹. 而虞齋晚村諸說亦皆如此, 大要較諸大全小註諸說, 則其平實簡正大不及, 且多穿鑿紕繆. 以此知儒者之學, 亦隨代以降, 而中原儒學之傳, 其無大段可觀者.”

45) 洪석주, 『淵泉集』 권16, 「答費吉士蘭墀書」, “近世陸稼書諸公, 瓚享紫陽, 分寸不失, 羽翼發揮, 厥功最鉅, 區區愚意, 尙嫌其字句間, 分析太密, 或啓口耳支離之弊, 而反以藉江西諸人攻斥之資斧爾.”

致中보다 어렵다’는 설을 제시하였다. 이에 김창집은 ‘致中하면서 致和에 부족한 경우는 없다’는 주자의 『或問』의 설을 근거로 반박한다.⁴⁷⁾ 4장 ‘道之不行也, 我知之矣, 知者過之, 愚者不及也. 道之不明也, 我知之矣, 賢者過之, 不肖者不及也’의 ‘愚’·‘不肖’에 대하여 『或問』에서 2장의 ‘君子中庸, 小人反中庸.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反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의 ‘小人’·‘無忌憚’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는데 육룡기는 이를 부연하였다. 김창집은 육룡기의 설을 따랐는데 이현익은 『語類』의 설을 근거로 반박한다.⁴⁸⁾ 6장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의 주자주 ‘不自用而取諸人也’에 대하여 육룡기는 경문의 ‘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까지 가리킨 것이라 하였다. 이에 유숙기는 ‘執其兩端, 用其中於民까지 가리킨 것이라’고 반박한다.⁴⁹⁾ 32장 ‘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

46) 正祖, 『弘齋全書』 권82, 「經史講義19○中庸3(甲寅)」, 「序」, “程勿齋之言曰: ‘虛靈心之體, 知覺心之用’, 陸稼書因而演之曰: ‘大學章句以虛靈對言, 則虛爲體靈爲用, 中庸序文以虛靈知覺對言, 則虛靈爲體, 知覺爲用’, 是其說似矣. 而證之以朱子之言, 則不能無抵牾者, 朱子之答林德久書曰: ‘知覺卽是氣之虛靈處’, 據此則虛靈知覺之不可分言可知矣, 答潘謙之書曰: ‘心之知覺, 所以具是理而發此情’, 據此則知覺二字之自具體用可知矣, 又烏可以虛靈知覺, 截然分開, 而一屬之體一屬之用耶. 然或有主程說者曰虛靈知覺, 果無體用之分, 則朱子之既言虛靈, 又言知覺者, 何爲其一意而疊說也. 且下文知覺不同一句之單舉知覺, 豈不以體無不同, 而用始有不同也乎. 此說果如何. 基天對, 程勿齋不識心之體段, 陸稼書分析太過, 恐非朱子本旨也.”

47) 金昌集, 『圃陰集』 권5, 「雜識日錄附」, 「李霽霖四書異同條辨辨」, “陸稼書致和比致中較難之說, 非常醜差, 豈不聞或問曰‘未有致中而不足於致和’乎.”

48) 이현익, 『正菴集』 권12, 「論中庸辨說」, 「第二章」, “敬明曰: ‘或問說愚不肖曰: ‘昏昧蹇淺, 不能知君子之所當知, 卑污苟賤, 不能行君子之所當行.’ 夫天下焉有其知之昏昧蹇淺, 其行之卑污苟賤, 而不足於爲小人者乎, 於此可見無忌憚之小人, 正愚不肖之謂也, 今陸稼書, 乃曰, 敬字, 是大關頭, 能敬便是君子, 路上人不敬, 便是小人, 路上人先離了小人的關, 然後再去細論, 智愚賢不肖, 蓋智愚賢不肖之過不及, 只在道中略差了些子, 小人之無忌憚, 在道外去遠了, 然則昏昧蹇淺, 卑污苟賤之人, 無非能敬之君子, 而無忌憚之小人, 不得與於昏昧蹇淺卑污苟賤之中也, 豈不謬哉, 雖語類亦嘗以愚不肖, 爲與小人不同, 而質以或問之說, 則決知其非定論也.’ … 按: 稼書都梁之以能敬不敬爲己爲人言, 則果不是矣. 高明之直以愚不肖作無忌憚之人, 亦恐未然, 竊意, 愚不肖, 是不及乎中庸者也, 無忌憚, 是反乎中庸者也, 細看反字不及字, 其有所別可知矣. 如桀紂之類, 可謂是無忌憚之人, 如衆人之尋常者, 則可謂是愚不肖之人. 今說桀紂謂之以反中庸則可, 謂之以不及乎中庸, 則豈不語涉歇後乎. 雖然, 愚不肖與無忌憚者固有別, 而皆不外於小人也. 觀所謂‘小人而反中庸’之‘而’字, 則便見小人說得濶, 無忌憚則言其甚者也. 是以朱子曰: ‘小人而不至於無忌憚者有之.’ 又曰: ‘小人固是愚不肖, 其有忌憚無忌憚, 只爭箇小膽大膽耳’, 觀於此則可以知矣.”

49) 俞肅基, 『兼山集』 권17, 「筭疑」, 「中庸(上○丙午)」, “第六章章句不自用而取諸人也一句, 意自是貫到執兩用中句, 而陸稼書以此一句, 單指問察隱揚說, 殊失朱子意.”

之大經, 立天下之大本, 知天地之化育, 夫焉有所倚‘의 ‘大經’과 ‘大本’에 대하여 주자주는 ‘此皆至誠無妄自然之功用’라고 하였는데 대전본 소주의 주자 설은 ‘經綸이 用이고 立本이 體라’고 하니 주자주와 어긋난다. 이에 육룡기는 경문이 아니라 주자주의 經綸과 立本을 풀이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조는 ‘주자의 『章句』에 오류가 없다’고 반박한다.⁵⁰⁾

육룡기의 『大學章句』 체제설에 대하여 이규경은 번잡하여 채택할 만하지 못하다고 부정한다.⁵¹⁾ 『論語集註』「雍也」‘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에 대하여 주자주는 ‘人多信鬼神, 惑也’라는 정자의 설을 부연하여 ‘不惑於鬼神之不可知’라고 해서 禱祠·卜筮·吉凶·禍福의 맥락으로 설명한 반면 『或問』은 ‘鬼神’을 ‘祀典之正’, ‘敬而遠之’를 ‘嚴之而不瀆’이라 해서 祖考神에게 아첨하여 복을 구하는 맥락으로 해석하니 주자주와 어긋난다. 육룡기는 『或問』의 설을 따랐는데, 이현익은 주자주에 근거하여 육룡기 설을 반박한다.⁵²⁾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육룡기 학설에 대한 비판 기준이 『四書集註』의 주자주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육룡기의 분석이 『或問』·『語類』·『大全』의 주자 설을 근거로 삼거나 자구의 맥락상 타당하다 하더라도 『四書集註』의 대의에 어긋나면 반박하고 그 반박의 근거 역시 『四書集註』에서 채택한 것이다. 이는 조선 학계의 중국 주자학설 수용의 한 특징으로, 조선에서 중국 학설을 수용할 경우 일정한 관점 내지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50) 정조, 『弘齋全書』 권83, 「經史講義20〇中庸4」, 「第三十二章」, “章句釋大經大本之義, 而總結之曰此皆至誠無妄自然之功用, 大經固可謂功用, 而至於大本則祇是渾然一理而已, 卽性之全體而誠之所在也, 尙何可謂誠之功用耶, 且朱子嘗有經綸是用立本是體之語, 與章句顯有不合, 故明季諸儒求其說而不得, 於是曲爲之解, 錢吉士用中體用之說, 陸稼書爲能註脚之論, 撈東摸西, 輾轉繳繞, 而至於仇滄柱之徒則顯誦章句之誤, 夫章句何嘗誤哉, 特未之思耳.”

51)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〇經傳類」, 「大學」, 「大學辨證說」, “近世穆堂李絳·三魚堂陸隴其, 俱有所論次, 而煩碎未可采.”

52) 이현익, 『正菴集』 권10, 「論語說下」, 「樊遲問知章」, “敬鬼神而遠之, 或問以鬼神爲祀典之正, 敬而遠之, 爲嚴之而不瀆, 此則似并祖考之神言之, 但集註曰, 不惑於鬼神之不可知, 且引程子人多信鬼神惑也之說, 則似只以禱祠卜筮吉凶禍福言, 當以此爲正, 若主或問說, 以不正者, 爲不可謂之鬼神, 而不使人敬而遠之, 亦不使人褻而慢之, 則如媚神求福作虛器祀爰居之類, 不在舉論中矣, 而雙峰·虛齋·晚村·稼書·都梁輩所言, 皆失其本旨矣.”

IV. 맺음말

명말청초 주자학자 육룡기는 주자학적 가치관 회복을 민생과 사회 안정책으로 삼고, 경전에 대한 엄밀한 연구를 통해 주자학의 진리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이유로 육룡기 학설은 조선 학계의 주목을 받고 수용된 바 있다. 따라서 육룡기 학설에 대한 조선 학계의 인식은 명말청초 주자학설이 조선 후기 학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조선 지식인은 청나라 조정의 주자학 진흥책과 관련하여 주자학자 육룡기의 문묘 배향과 그 실증적 연구 성과에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육룡기가 추구한 연구 목적, 즉 주자학의 정통성 확립과 이단 배척은 주자학 연구가 심화되어 가던 조선 학계의 호감을 살만한 것이었다. 이는 양명학을 위시한 이설을 반박하고 주자학을 변호하는 육룡기 학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사례, 특히 육룡기의 주자의 『大學章句』 변호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호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선 지식인은 주자의 『四書集註』의 대의에 반하는 육룡기 학설을 비판하였다. 즉 학설에 대한 선별이 정밀하지 못하고 자구에 대한 분석이 번잡한 나머지 도리어 주자 학설의 대의를 놓쳐서 학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양명학파에게 주자학 비판의 구실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조선 학계의 중국 학설 수용의 한 특징으로, 조선에서 중국 학설을 수용할 경우 일정한 관점 내지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陸隴其, 『三魚堂文集』, 『文淵閣四庫全書』 1325

陸隴其, 『四書講義困勉錄』, 『文淵閣四庫全書』 209

陸隴其, 『松陽講義』, 『文淵閣四庫全書』 209

張伯偉, 『朝陽時代書目叢刊』, 中華書局, 2004

金邁淳, 『臺山集』, 한국문집총간 294, 한국고전번역원

金永爵, 『邵亭文稿』, 한국문집총간 속 126, 한국고전번역원

金正默, 『過齋遺稿』, 한국문집총간 255, 한국고전번역원

金鍾正, 『雲溪漫稿』, 한국문집총간 속 86, 한국고전번역원

金鍾厚, 『本庵集』, 한국문집총간 237, 한국고전번역원

金昌集, 『圃陰集』, 한국문집총간 176, 한국고전번역원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한국고전번역원

徐滢修, 『明臯全集』, 한국문집총간 261, 한국고전번역원

成海應, 『研經齋全集』, 한국문집총간 273~279, 한국고전번역원

尹行恁, 『碩齋稿』, 한국문집총간 287~288, 한국고전번역원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7~259, 한국고전번역원

李晩秀, 『履園遺稿』, 한국문집총간 268, 한국고전번역원

俞肅基, 『兼山集』, 한국문집총간 속 74, 한국고전번역원

李宜顯, 『陶谷集』, 한국문집총간 180~181, 한국고전번역원

李瀾,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8~200, 한국고전번역원

李顯益, 『正菴集』, 한국문집총간 속 60, 한국고전번역원

田愚, 『艮齋集』, 한국문집총간 332~336, 한국고전번역원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4, 한국고전번역원

曹兢燮, 『巖棲集』, 한국문집총간 350, 한국고전번역원

洪大容, 『湛軒書』, 한국문집총간 248, 한국고전번역원

洪奭周, 『淵泉集』, 한국문집총간 293~294, 한국고전번역원

洪直弼, 『梅山集』, 한국문집총간 295~296, 한국고전번역원

徐有聞, 『戊午燕行錄』, 『연행록선집』, 한국고전번역원

徐浩修, 『燕行紀』, 『연행록선집』, 한국고전번역원

李珥, 『燕行記事』, 『연행록선집』, 한국고전번역원

黃梓, 『甲寅燕行錄』, 『연행록선집』, 한국고전번역원

未詳, 『薊山紀程』, 『연행록선집』, 한국고전번역원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고전국역총서』 152, 한국고전번역원
李瀾, 『星湖僊說』, 『고전국역총서』 107, 한국고전번역원

김유곤, 「한국 유학의 『大學』 체재에 대한 이해(2)-고본대학 체재의 정합성을 인정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6, 동양철학연구회, 2011

당윤희, 「『四書朱子異同條辨』의 조선으로의 전래와 영향에 대한 일고」, 『중국어문학회』 40, 중국어문학회, 2012

신재식, 「正祖朝 經學의 顧炎武 經說 수용 양상」,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7

신재식, 「조선 후기 지식인의 李光地 수용과 비판」,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2017

신재식, 「조선 후기 『大學』 연구와 陸隴其의 영향」, 『퇴계학논총』 35, 퇴계학연구, 2020

임홍태, 「王守仁의 大學觀 연구」, 『동양고전연구』 35, 동양고전학회, 2009

Joseon Academic Circles' Recognition of Lu Longqi's Theory on Neo-Confucianism

Shin, Jae-sik

Lu Longqi (1630~1692), a neo-Confucian scholar of late Ming and early Qing, considered the recovery of neo-Confucian values as a way to stabilize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and the society and focused on recovering the truthfulness of the neo-Confucianism through close study of scriptures. The academic circles of Joseon focused on and accepted Lu Longqi's take on Neo-Confucianism, and thereby Joseon academic circles' recognition of Lu Longqi's neo-Confucianism can be a clue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of late Ming and early Qing upon the academic circles of late Joseon.

In relation to Qing's policy of promoting neo-Confucianism, the literati of Joseon focused on and positively accepted the canonization in Confucian shrine and his empirical research outcomes. The purpose of Lu Longqi's research, which is to establish the authenticity of neo-Confucianism and exclude heresy, must be attractive to Joseon's academic circles in which the research on neo-Confucianism was becoming intense. Thi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case where Joseon's academic circles positively accepted Lu Longqi's theory, which contradicted heresies including Yangming Doctrines and defended neo-Confucianism, particularly Lu Longqi's defense of 『Commentary on Great Learning』 by Chutzu, which won favorable criticisms from the literati of Joseon.

Meanwhile, the intellectuals of Joseon criticized Lu Longqi's diverging view against the essential meaning in the 『Collected Commentaries』 of Chutzu by the reason that he failed to select relevant theories correctly and that he was unclear in interpreting the scripture that he rather missed the essential meaning in it to increase confusion among scholars and even gave an excuse for scholars of the Yangming School to criticize neo-Confucianism. This indicates that Joseon academic circles' acceptance of Lu Longqi's theory only went so far as supplementing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neo-Confucianism.

This seems to be the limit of Joseon academic circles in accepting Lu Longqi's theory.

Key Words : Lu Longqi, Late Ming and Early Qing, Late Joseon Dynasty, Justification of Neo-Confucianism, Criticism of Yangming Doctrines, Commentary on Great Learning, Collected Commentaries on Four Books